

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20일 처리 합의

3당 원내대표 회동 ... 인터넷은행법·규제개혁법과 함께 정부위, 은산분리 완화 지분보유 4%→34% 상향 중재안 마련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은행법, 규제개혁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바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인터넷은행법 특례

법은 정부위 보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기본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도 미세하게 몇 가지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20일에는 지난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떤 방향을 찾아서라도 3당 원내대표끼리는 이번엔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빠지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원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내세운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택해 병합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규제완화법 처리와 관련, "당내 논의는 거의 마무리된 것 같다. 이견이 있어도 당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어 "작은 부분에 협의할 것이 남아 있는 게 있으나 절대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 협상 이후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그동안 당내 의견이 분분했던 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의원들의 반발은 있었으나 당 지도부 책임 하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와 만나 "원내지도부 책임 하에 여야간 최종합의를 거쳐 20일 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이 은행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서 대주주 자격요건 관련 규정을 정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인터넷은행 관련 법에 대한 중재안을 만들었다. 중재안에 따르면 여야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지분보유는 4%에서 34%까지 상향키로 했다. 다만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비중을 감안해 완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토록 했다. 대주주 자격(한도조각 보유주주) 심사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주적관·정치편향·위장전입 공방

정경두 국방장관·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국회에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렸다. 정상회담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탓에 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약했지만 여야는 최선을 다해 두 후보자의 공직 자격검증에 매진했다.

◇정 장관 후보 청문회=국회 국방위원회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 후보자가 주적 개념을 모호하게 피해간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서정원 의원은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서면답변에서 머물거물(우물쭈물)하기만 하더라"며 "국제사회 움직임은 평화로 가지만 그래도 북한은 우리 적이라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질의에서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이 삭제돼야 할 이유가 있느냐. 객관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재정 후보자는 주적 개념 재설정과 관련, "주적이 북한군으로만 제한했는데 영공·영토·영해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나 IS(이슬람국가)와 같은 주체 불분명의 테러 세력, 사이버테러 세력도 모두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구동성으로 정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정책 능력까지 검증됐으며 국방장관으로 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명장 발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후 정 후보자는 주적 개념 재설정과 관련, "주적이 북한군으로만 제한했는데 영공·영토·영해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나 IS(이슬람국가)와 같은 주체 불분명의 테러 세력, 사이버테러 세력도 모두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구동성으로 정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정책 능력까지 검증됐으며 국방장관으로 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명장 발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의원은 "국방백서에 담을 주적 개념 논란도 더는 불필요한 논쟁으로서 후보자는 멋진 표현을 이용해 주적 개념을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날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부 독립과 도덕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국당이 추천한 이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시절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고 공격한 반면, 한국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옹호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2014년 MBC 직원들이 낸 전보 발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으로 사측에 치우친 편향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이 후보자는 본인이 세 번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가 두 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지적했고, 전재수 의원은 "불가피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추궁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30여년 동안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재판에 대한 판결을 많이 했는데 특정한 성향이나 이념에 치우쳤다고 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양승태 사법부의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등의 문서 작성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명장 발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후 정 후보자는 주적 개념 재설정과 관련, "주적이 북한군으로만 제한했는데 영공·영토·영해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나 IS(이슬람국가)와 같은 주체 불분명의 테러 세력, 사이버테러 세력도 모두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구동성으로 정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정책 능력까지 검증됐으며 국방장관으로 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명장 발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추측했다.



민주당 63번째 생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및 지도부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기념 떡을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최저임금 1만원, 2021·2022년 검토"

국회서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기와 관련, "당장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별,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

자 부회장의 방북 논란에 대해선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인 중 한 명이고, 남북경제 교류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같이 수행원으로 가게 된 것"이라며 "언론, 여론에서 '이번엔 꼭 방북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잘 새겨들어야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성장론을 들고나온 자유한국당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토론을 제안했다"는 질의에는 "진실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며 "출산주도성장을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할 가치가 없다. 토론도 격이 맞아야 한다"고 반격했다.

이 대표는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대책의 초점은 극소수 사람들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세금을 더 걸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금폭탄과 관계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규모가 작고 수준이 떨어진다든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신경 써서 공급하고,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도록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선 "2007년 이후 새로 생긴 공공기관을 포함해 전체 대상기관이 120개 정도 있는데 기관 자체의 성격상 못 가는 곳들을 빼면 얼마나 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창

당 6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이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기념사에서 "민주당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온 아주 큰 기둥이었다"며 "1955년 어려운 시절 민주당을 창당해 여기까지 63년간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앞으로 10번은 더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955년 9월 18일 이승만 정권에 맞서 범야권이 총결집해 창당한 당시 '민주당'이 모태다. 민주당은 애초 '생일'인 18일에 기념식을 열려고 했으나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18~20일) 일정을 고려해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 253개 지역위원장 모집

바른미래당이 17일 지역위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손학규 대표 체제 들어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들어갔다.

이날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합당 당시 지역위원장의 임기를 6·13 지방선거로 정해 직위 해제된 상태다. 공모는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본인이 상시 방문 접수하도록 했다.

공모는 일반전형과 청년 특별전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전형 대상 가운데 '지역조직형'은 해당 지역구 인구 0.1% 이상의 책임당원을 모집할 때, '전문가 인재형'은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출

한 경우에만 응모가 가능하다. 청년 특별전형은 만 39세 이하 청년 당원이 대상으로, 사회관계망(SNS) 활동과 포트폴리오 검증 등을 통해 선발한다.

위원장 선출은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전화 면접 ▲역량평가 ▲최종면접 ▲지역위원장 선정 ▲지역위원장 선출까지 6단계의 검증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오신환 사무총장은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조직강화특위를 필요할 때마다 늘 계획"이라며 "민주주의 가치와 바른미래당이 나아갈 길 같은 주제로 구술이나 기술할 수 있는 시간을 20~30분 동안 주고 평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에너지관리공단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농협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